

정품 OK, 짝퉁 OUT!

특허청,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 개최

- (1부) 전시물 관람으로 해외직구 짝퉁도 보고 정품·가품 비교도 -
- (2부) ❶민(民)·관(官) 합동 ‘정품 오케이, 짝퉁 아웃’ 대응 전략 공유 -
- ❷ 온라인 플랫폼 짝퉁 차단 책임 강화’ 법적 방안도 논의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6.(목) 오전 9시, JW 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民)·관(官)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기품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 협의체로 '14년 출범, 현재 96개 회원사로 구성(붙임 3)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1년 한 해 약 11조원으로 추산되며, 약 1.3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악영향이 상당한 상황이다.

*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위조상품 유통 현황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OECD, ' 24.6)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 민간협회 및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제1부> ❶해외직구 위조상품 ❷특사경 압수 물품 ❸정품·가품 비교 전시회

1부에선 패션·화장품·완구 등 위조상품 전시회 관람이 진행됐다. 전시회는 ❶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짝퉁 물품과, ❷특허청 특사경에 의하여 압수된 위조상품, ❸정품과 짝퉁을 구별해 보는 정·가품 비교 전시 코너로 기획되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의 완구·학용품부터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자동차용품, 화장품 등까지 위조상품이 우리 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침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붙임 4).

<제2부> ❶민·관 짝퉁 대응책 공유 ❷온라인 플랫폼 짝퉁 차단 책임 강화 제도 논의

2부에선 민·관이 함께 짝퉁 대응 전략과 실제 차단 성과를 공유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발표회(세미나)가 개최됐다.

❶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미리 막기 위해, 특허청이 점검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범 도입 중인 AI 위조상품 점검(모니터링)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자체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현황을 소개했다.

❷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 (Notice & Takedown 조치) 권리자 신고 시, 즉시 판매물을 내리고, 판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권리자 통지 후 판매를 재개하는 제도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위조상품 방지 이행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고, 민관이 협심하여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위조상품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문제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ippolice.go.kr)’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 붙임: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 포스터 및 개최 계획 등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석 (042-481-5213)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2-481-5179)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5959)
		담당자	사무관	김재탁 (042-481-8144)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

'24.9.26.(목) 09:00~13:00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살롱 1,2,3)

개요

IP권리자·플랫폼사·유관기관의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 공유 세미나,
피해 민발업종의 위조상품 전시 등

참석자

이철규 국회의원, 김완기 특허청장,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회원사 등

신청방법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



주최



주관



PROGRAM

시 간	주요내용	
	제1부 전시회(F3 복도) : <피해 민발업종의 위조상품 전시 관람>	
09:00~09:10('10)	위조상품 전시 관람	
	제2부 세미나(F3 살롱 1,2,3) :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의 대응전략>	
09:10~09:15('05)	개회사	▪ 김완기 특허청장
09:15~09:20('05)	축사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09:20~09:25('05)	기념사진 촬영	
09:25~09:45('20)	발표 1	▪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정책방향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09:45~10:25('40)	발표 2	▪ 위조상품 유통방지 정책 및 성과 공유 정보원 우광 상무 김미지 네이버 이사
10:25~10:40('15)	발표 3	▪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방지업무 현황 권영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보호문화협력실장
10:40~11:00('20)	휴식	
11:00~12:00('60)	패널토론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I 좌장 I 이재경 건국대 교수 I 패널 I 장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박영수 한국메션산업협회 상무 민정환 LG생활건강 상무 하명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이재환 우신사 본부장
12:00~13:00('60)	참석자 오찬 및 행사 종료	

□ 행사 개요(안)

- (목적) ▲위조상품 피해 빈발업종의 정·가품 비교 전시물 관람^{전시회},
▲IP권리자·플랫폼社·유관기관의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 공유^{세미나}
- (일시 /장소) '24.9.26(목) 08:50~13:00 / JW 메리어트(서울 서초구)
- (참석자) 특허청장, 이철규 의원, 지식재산보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 프로그램(안)

시 간		주요내용	
사전 환담(F9 VIP라운지)			
08:50~09:00('10)	사전환담	■ 주요내빈 티타임	
제1부 전시회(F3 복도) : <위조상품 피해 빈발업종 정·가품 전시 관람>			
09:00~09:10('10)	전시관람	■ 전시회 촬영	
제2부 세미나(F3 살롱 1,2,3) :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의 대응전략>			
09:10~09:15('05)	개회사	■ 김완기 특허청장	
09:15~09:20('05)	축 사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09:20~09:25('05)	기념사진 촬영		
09:25~09:45('20)	발표 1	■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정책방향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09:45~10:25('40)	발표 2	■ 위조상품 유통방지 정책 및 성과 공유 (1) 김미지 이사 (주)네이버 (2) 정보현 상무 (주)쿠팡	
10:25~10:40('15)	발표 3	■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방지업무 현황 권영소 실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0:40~11:00('20)	휴식 및 패널토론 단상 준비		
11:00~12:00('60)	패널토론	■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좌장 :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변호사 ○ 패널 : (특허청)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상표권자) 박영수 한국패션산업협회 상무 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플랫폼사)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이재환 무신사 본부장	
12:00~13:00('60)	참석자 오찬 및 행사 종료		

□ 일반 현황

- (목적)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 협력을 통한 상표권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 '14년 5월 출범(특허청, 상표권자, 오픈마켓·포털사이트 등 46개 기업·기관)

- (구성) 정부·유관기관, 상표권자, 온라인사업자 등 96개 기관 및 기업

【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구성원(24.7월 기준) 】

구분	참여 기관
정부 및 유관기관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브랜드지식재산권 보호협회, 유럽상공회의소 (10개 기관)
상표권자	LG전자, 삼성물산, CJ, 아모레퍼시픽, 코오롱인더스트리F&C(주), LG생활건강, 영원아웃도어 등(60개사)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번개장터,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카카오, 헬로마켓,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롯데ON, 씨제이이엔엠, 이마트, 공영홈쇼핑,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중고나라, SSG.COM, 브랜드, 당근마켓 등(26개사)

□ 주요 활동

- (단속협력) 특허청·상표권자·온라인사업자·보호원 등이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감시* 및 합동단속** 실시

*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플랫폼과 위조상품 게시물 제재 협력(연중 상시)

** 대구 서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서울 중구 등 주요 위조상품 유통지역 8회이상

- (협력 모니터링) 상표권자,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확산 방지

- (지재권보호 교육) 협의회 구성기업을 대상으로 유통빈발 위조 상품·브랜드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위조상품 유통방지 관련 교육

□ 위조상품 전시 개요

- ①특허청·관세청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차단된 위조상품, ②특허청 상표경찰에 의해 압수된 위조상품과 을 비롯하여,
- 정·가품 비교 체험을 위한 ③정·가품 비교전시 코너로 구분

① 특허청 · 관세청간 협업 경과

- 알리, 테무 등 C-커머스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 특허청에서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모니터링한 후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시 차단시키는 시스템을 시범 실시 중이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임

* ('24.4~8월 차단실적) 특허청 1,764건 적발 → 관세청 2,316건 통관보류

【 통관단계 짝통 차단을 위한 특허청·관세청의 역할(예시) 】



- 관세청의 알·테·쉬 위조상품 통관보류 물품 전시(예시)



②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 특허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에 지명되어 상표법 위반 범죄를 수사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호 및 제6조제35호

【 상표경찰 수사 흐름도 】

신고/인지	수사	피의자 신문	판단	송치
· 신고 * 고소·고발 · 수사관 인지	· 신고(고소) 내용 검토 · 영장집행 · 현장단속 · 정품감정(상표)	· 피의자 신문 · 대면조사 * 신고인 참고인	· 무효 및 침해 여부 판단	· 의견서 작성 및 검찰에 사건 송치 · 송치 후 사건 내역 설명 등

- 특사경 단속물품 전시(예시)



③ 정·가품 비교 전시

- 상표권자 등의 협조(정품제공)를 받아 참석자들이 정품과 위조상품의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정·가품 비교 전시를 마련

- 정·가품 비교 전시(예시)

